

Improvement Plan for Missing Dementia Investigation

Keon Su Lee⁺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Baekseok University, 76, Dongam-gu, Cheonan, Chungcheongnam-do, Korea

Abstract

Korea is rapidly becoming the aging society. According to statistics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aged 65 or over is expected to reach 13.1% in 2015 and 32.4% in 2040. With the increase in economic activity, more and more dementia patients have disappeared due to weak family ties and lack of family care support. Nevertheles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police have faced the limit of responding to the disappearance of dementia patients using identification tags or the fingerprint pre-registration system. Currently, it is unclear how the police should respond and investigate the disappearance of patients with dementia. We investigate the causes of missing patients with dementia and propose cause-specific investigation methods and improvement measures.

Key words: dementia, disappearance investigation, tracking technique, cause of disappearance, aging society

1. 서론

치매환자의 실종사건이 전국적으로 하루에 25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집안에 가장인 치매노인이 실종될 경우 가정의 붕괴와 구성원들간 책임소재 다툼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은 그 환자 때문에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시간과 경제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항상 보호자가 따라 붙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은 실종환자에 대한 원인별 대응체계와 수사기법을 마련하여 대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석과 수사기법 미비로 한계를 나타나고 있다.

경찰청 프로파일링에 등재된 통계에 따르면 '15년도

치매환자는 발생 9,046건, 해제 9,069건으로 발견율 100.3%이다. 발견율이 높은 이유는 '15년도 이전에 실종된 사람을 함께 발견했기 때문이다. '14년도 발생 8,207건, 해제 8,232건이다. 해마다 치매환자 실종사건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15년도에 50세 미만 53명, 50~59세 368명, 60~69세 1,301명, 70세 이상 7,324명이고, '14년도 50세 미만 45명, 50~59세 289명, 60~69세 1,118명, 70세 이상 6,755명이다. 질병의 특성상 60세 이상 실종이 95.6%를 차지하는 대다수이다.

이러한 치매환자 실종사건에 대해 실종원인과 수사 방법, 사후처리 등에 대해 경찰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세밀한 분석이 안되어 있어서 체계적인 대처와 수사를

⁺ Corresponding author: Keon Su Lee, Tel. +82-41-550-9045, Fax. +82-41-550-9027, e-mail, keonsu@naver.com

할 수가 없다. 이 논문에서는 치매환자에 따른 실종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 원인에 따라 어떻게 실종수사를 해야 할지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II. 이론적 배경 및 분석

1. 실종 치매환자의 개념

치매관리법 제2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하고,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치매란 누구라도 나이가 들면 신체의 노화와 함께 뇌나 내장 기관에도 노화 현상이 나타난다(Hwang, 1997: 39-41). 뇌의 노화로 인한 장애로는 정신 기능의 쇠퇴가 나타나는데 특히 기억력의 저하가 두드러진다.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생리적 건망증에서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 치매의 원인은 본태성 치매(알츠하이머형), 혈관성 치매(고혈압, 당뇨병 등 동맥경화), 기타 이차성 치매(경막하 혈종, 정상압 수두증, 뇌종양, 정신성 질환 갑상선기능저하, 비타민B12 결핍, 알콜중독) 등이 있다고 한다. 도널드 레이건 미국 前 대통령을 비롯하여 대처 영국 전 수상 등 대통령에서 유명 할리우드 스타 등 상당수의 유명 인사들이 치매로 고통받다 사망한 경우가 적지 않다.

치매환자의 실종에 대해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아동등’이란 실종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하고, ‘실종 아동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실종자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만 18세 이상의 사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사용하는 ‘이탈’이란 보호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생사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이며, 채무로 인한 도피,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된 사람, 허위로 신고 된 사람, 보호자가 가출 시 동행한 아동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치매환자 실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2017년 9월 13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 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R&D) 과제가 추진하여서 원인 규명부터 돌봄 서비스까지 분야별 전문가를 총동원해 기획연구단을 구성, 모든 R&D 전략 수립을 일원화 한다고 한다. 긍정적 부분으로 사료된다.

2. 실종 치매환자의 특성

치매는 기억력장애, 언어장애, 지적능력 상실 등 노인성 질환으로 가족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생활이 불가능하다.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대부분 65세 이상의 노년기에 신경세포가 떨어져나가 뇌 전체가 위축되는 결과로 발병한다. 증상은 기억과 사고능력을 손상시킴으로 혼동, 인성변화, 행동변화, 판단력의 손상, 언어능력의 상실 등이 있다. 혈관성 치매는 다발성 경색치매, 두개의 동맥질환, 심장성 치매 등이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뇌가 혈액공급을 원활히 받지 못함으로써 뇌실질의 괴사로 인해 나타난다. 기타 치매질환으로 파킨슨병, Pick병, 대사성 독성치매 등의 다양한 종류의 치매가 있다.

치매환자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원인을 외부로 돌림으로서 일어나는 갈등, 격리감 등으로 무엇인가 잘못되어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울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치매노인은 피곤해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배회를 하여 실종으로 이어진다. 주요증상은 심한 건망증, 시간과 날짜, 장소를 모르는 지남력 장애, 불면증으로 인한 주야전도, 의심증, 폭식 등의 섭식장애 등이 있다.

Table 1. Age-specific analysis of missing dementia patients (2015)

division	sum	20~29years	30~39years	40~49years	50~59years	60~69years	Over 70 years
sub Total	9,046	2	7	41	368	1,301	7,327
man	4,476	1	2	25	238	712	3,498
woman	4,569	1	5	16	130	589	3,826

※ Source: Internal Police Agency

Table 2. Analysis of causes of disappearing dementia patients (2015)

division	sum	dementia	Family discord	recidivism run away	Suicide suspicion	religion Problem	Etc (Unknown cause)
sub Total	9,046	7,884	72	68	16	3	1,003

※ Source: Internal Police Agency

3. 실종 치매환자 유형별 현황 분석

1) 연령별 분석

치매환자에 대해 연령별 분석을 보면, 2015년도 총 9,046건 발생한 것 중에 20~29세 2명, 30~39세 7명, 40~49세 41명, 50~59세 368명, 60~69세 1,301명, 70세 이상은 7,327명이다.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70세 이상 치매환자 실종이 전체 81%를 차지하고 있다

치매환자 중에 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93명이 많았으며, 60세 이상은 여성이 남성보다 206명이 많다(〈Table 1〉 참조).

2) 실종원인 분석

실종 치매환자의 초·경·중증 등 모두 포함하여 실종 주원인을 분석해보면, 치매 7,884명, 가정불화 72명, 상습기출 68명, 자살의심 16명, 종교문제 3명, 기타

(원인불명) 1,003명이다. 여기에서 눈여겨 볼 점은 치매가 발병하면서 발생하는 가정불화, 기출, 자살 등 실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Table 2〉 참조).

3) 실종장소 분석

치매환자 실종장소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종장소를 살펴보면, 집에서 나간 이후 실종 7,287명, 노상 622명, 병원 489명, 역·터미널 214명, 상가(시장) 152명, 종교시설 109명, 공원 72명, 타인의 집 58명, 산 39명으로 나타난다. 특히 치매환자의 특성 때문에 실종은 어디에서든지 발생한다는 점이다. 치매질환이 있는 경우 집과 병원, 터미널, 상가, 종교시설, 공원, 타인의 집, 산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실종에 대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Table 3〉 참조).

Table 3. Analysis of missing dementia patients by location (2015)

division	sum	residence	road	hospital	Terminal etc.	store (market)	Religious facilities	Park	Another's house	mountain
sub Total	9,046	7,287	622	489	214	152	109	72	58	39

※ Source: Internal Police Agency

Table 4. Analysis of missing dementia patients by region (2015)

division	sum	Seoul Office	Seoul nambu	keonggi	busan	inchen	keongi bukbu	deagu	keongnam	keongbuk	chungbuk	chungnam	kwangju	daenjen	jenub	jeonnam	kwangouan	ulsan	jeju
sub Total	9,046	2,431	1,537	625	625	588	573	313	295	291	280	274	269	259	248	225	106	105	

※ Source: Internal Police Agency

4) 실종 치매환자 지역별 분석

전국적으로 실종 치매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2,431명), 경기남부(1,537명), 부산청 및 인천청(각 625명), 경기북부청(588명), 대구청(573명), 경남청(313명), 경북청(295명), 충북청(291명), 충남청(280명), 광주청(274명), 대전청(269명), 전북청(259명), 전남청(248명), 강원청(225명), 울산청(106명), 제주청(105명)이다(〈Table 4〉 참조).

5) 발견원인 분석

실종 치매환자 발견사례를 살펴보면, 경찰수사 5,348명, 자진귀가 1,344명, 제보발견 1,015명, 부모(가족) 발견 1,008명, 이웃발견 273명, 시설신고 58명 등이다. 특히 경찰수사를 제외하고 전체 41%(3,698명)인 가족 등 이웃의 도움이 실종 치매환자 발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즉 치매환자 발견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신경인지검사, 영상검사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후견제도 활용이 어려운 저소득·독거 치매환자를 위해 공공 후견체계 마련할 움직임 등은 긍정적 부분으로 본다(〈Table 5〉 참조).

4. 외국의 치매환자 실종 관리방안

1) 미국의 치매환자 실종 관리방안

미국은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방법으로 민간단체 등이 Alzheimer's Association Safe Return Program을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환자에 대해 개별 인식표를 환자의 몸에 지니게 하고 이를 일괄 보관하고 관리하여 실종 후 재발견 시 신원여부를 즉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¹⁾. 그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美 세인트찰스 카운티 경찰은 치매 노인·자폐아 등 노약자의 실종예방을 위해 위치추적 장비인 'Care Trak'을 운영 중이다. 同 장비는 송·수신기로 구성, 라디오 전파의 특정 주파수끼리 무선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송·수신기 세트당 \$ 5,000(약 550만원)이고, 송신기는 개당 \$ 250(약 27만원)이다. 송신기는 손목시계 모양으로 자체구매 또는 기부 받아 평상시 착용하고, 수신기는 송신기가 있는 곳의 방향을 가리키거나, 송신기와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빠르고 강한 신호음 출력한다. 인공위성 GPS가 최신 추적 장비이나, 3~4일 정도로 배터리 수명이 짧고 날씨 및 주변 건축물 환경에 따라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러한 점과 비교해볼 때, 2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날씨 및 건물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Care Trak'을 선호하고 있다. 현재 美 지역 언론은 경찰이 同 장비로 3,000여건의 실종사건을 해결하는 등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호평 보도하고 있다²⁾. 우리나라도 적극 장비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영국의 치매환자 실종 관리방안

영국에는 약 80만명의 치매노인이 있으며, 2021년까지 100만명으로 증가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영국 남부 해안을 관할하는 Sussex경찰청은 영국에서 처음으로 실종신고가 접수되는 치매노인들에게 GPS장치를 부착하여 활용하고 있다. GPS수신기를 본인 및 가족의 동의하에 대상자의 목, 벨트, 열쇠꾸러미 등에 부착 4분마다 위치를 확인하고 있으며, 유지비용은 1인

Table 5. Analysis of causes of disappearing dementia patients (2015)

division	sum	police Investigation	Will homecoming	Report discovery	family discovery	Neighbor Discovery	facility Declaration
sub Total	9,046	5,348	1,344	1,015	1,008	273	58

* Source: Internal Police Agency

1) LA Consulate General, 2005.08.09, LA-567, Internal Reporting Material.

2) FOX2 NOW紙, 2015.02.18, Police embracing new technology to help safeguard the vulnerable 題下.

당 £27.5(한화 약 4만7천원) 수준이며, 모니터링은 행정기관(Chister District Council)과 계약한 민간회사에서 담당한다. 등록된 가족은 컴퓨터상 지도를 통해 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환자의 위험을 예방하고 실종 시 수색을 위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한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치매로 고생하는 환자에게 범죄자처럼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야만적인 조치라는 비판여론도 상존하고 있다³⁾.

2016년 9월 30일 경찰청 외사정보과 내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속옷 부착형 신고장비인 ‘퍼스널 가디언’(Personal Guardian)을 개발했다. 이 장비는 사용자의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경찰과 가족 등에게 위급상황을 알리고 도움 요청이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 GPS로 위치를 전송하고, 목소리 등 현장상황을 녹음하여 추후 수사 단서·재판의 증거로 사용가능 하다. 제원 및 장비를 살펴보면 年서비스 이용료 99파운드(약 14만원), Pick Protection社 제품, 가로 3.5cm × 세로 6cm, 무게 40g, 배터리는 1회 충전으로 1년간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 장비들과 달리 자연스럽게 상시 휴대할 수 있어 특히, 야간 실종 시 적절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치매 실종환자를 대상으로 속옷 부착형 ‘퍼스널 가디언’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3) 일본의 치매환자 실종 관리방안

일본 치매환자 수는 노인인구 4명 중 1명 꼴인 약 862만명이며, 2013년 치매노인 실종자는 1만 322명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했다. 이에 일본경찰청은 치매노인 보호·실종자 조기발견 방안을 마련하도록 2014년 6월에 각급 경찰관서에 지시하는 등 문제해결에 주력했다. 그 방편으로 생활협동조합⁴⁾ 택배원들이 특히 독거노인과 접촉이 많은 것을 활용하여 생활협동조합

과 치매노인 관리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오사카府警, 경찰이 발견한 치매노인 사진을 65개 소속 경찰서에 비치해 실종자 가족들이 주거지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실종자에 대해 얼굴 사진·신체적 특징·발견 일시 등에 대한 정보를 대장에 기재해 경찰관 입회하에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효고縣警은 치매실종자 조기발견에 민·관 합동수색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縣내 배회노인 발견을 위한 서포터 150여명을 모집하였는데, 사전심사를 통해 개인정보 취급에 주의하도록 서약서 징구 후 협력자로 등록한다. 縣警은 치매노인 실종 신고시 실종자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 후 서포터에게 이름·주소·사진 등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서포터는 지자체로부터 발송된 정보를 토대로 수색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2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17건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1명의 사망자를 제외하고 16명 모두 무사히 귀가시킨 바 있다⁵⁾.

III. 실종 치매환자 수사의 문제점

1. 실종 치매환자 상태에 따른 대응능력 부족

치매환자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치매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현장 신고출동, 지구대·형사·의경·119대원 등을 이용한 발견위주의 수색을 통한 대응과 수사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치매환자의 경우 실종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1) 알츠하이머형 치매환자 실종

인지장애 형태는 기억력, 판단력, 지남력이며, 정신 상태는 환각이다. 대부분 외롭게 지내는 노인이 우울증을 통해 건망증이 심해져 물건을 잊어버리거나 헤매는 횟수가 점점 증가하여 간다는 것이다. 2017년 9월 10일

3) British Police Officer, 2015, Britain-80, Internal Reports.

4) It means consumer cooperative, and the union member runs the store with the contribution money. 48% of Japanese households are members.

5) Japanese Police, 2014.12.12, Introduction of Police Measures.

오전 11시경 강원도 인제군 원통리 인근에서 치매환자 조모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실종원인은 치매를 앓고 있었으며, 실종에 대한 대처부족이 사망으로 이어진 것이다. 알츠하이머형 치매환자 실종은 거주지를 새로운 곳으로 옮긴 경우에는 불안정해지고 집도 잘 찾지 못하고 배회를 하게 되며, 전화를 잘 받지 못하고 물건을 사고도 돈 계산도 잘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실종 현장에서 언제 이사를 와서 거주하였는지, 치매환자의 평소 행동 등을 유심히 파악하여 수사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

2) 혈관성 치매환자 실종

인지장애 형태는 기억력, 판단력, 지남력이며, 정신 상태는 환시·우울증·불안감이다. 행동장애는 울기·거식 현상을 보이곤 한다. 혈관성 치매환자는 평소에도 잘 다니던 외출도 하지 않고 친구와 만나기를 꺼려하며,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배고파 못 견디겠다는 말을 자주 한다. 주원인은 대부분 믿고 의지한 남편 또는 자녀들이 사망하면서 발생하는 충격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본다. 따라서 치매증상이 있더라도 인격적 자존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혈관성 치매환자가 실종되었다면, 실종당시 치매환자의 상황과 평소진술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즉 실종당시 인격적 모독감을 통해 나간 것인지 또는 아들 또는 남편을 만나러 가겠다 등 평소 진술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확인하여 추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러한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여 수색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기관간 협업체계 활성화 미비

2015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수사를 제외하고 전체 41%(3,698명)인 가족 등 이웃의 도움이 실종 치매환자 발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치매환자 발견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각 지역별로 이러한 기관 간에 협조 체계 미숙으로 인해 치매환자 실종사건에 대해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 지역별 치매환자의 상태파악 필요

각 지역별로 치매환자에 대해 어떤 질환을 언제부터 알게 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지, 치매환자의 상태의 경중여부 파악, 보호자는 누구이며, 함께 거주하며 보호 조치를 하고 있는 지 여부, 보호방법은 집안에서인지, 시설 등을 통해서 인지 사전에 자세히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치매환자가 실종된 경우 주거지 주변에서 사망한 상태로 많이 발견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집주변에 위험요소는 무엇이 있으며, 점검 등을 통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사전에 보호자들과 논의를 해서 개선해야 한다. 실종을 대비해서는 집주변에 CCTV부착을 하고, 가까운 파출소와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전지문등록을 해야 하며, 치매환자의 옷에 치매인식표부착 하는 등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 대부분 이러한 조치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은 작은 정성과 관심에서 사전에 미리 막을 수 있다.

2) 부실한 기관 간 협력체계

치매환자에 대해 다양한 시설과 지역중심 서비스, 경찰관서, 주민들의 협력관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력은 치매환자 실종은 내 가족의 실종이라는 인식이 함께 해야 가능한 일이다. 또한 치매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복지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경찰과 주민들의 협력 체제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Pratt, *et. al.*(1985)에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보호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공감하고 해소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준비 및 지원시설이 절실하다(Pratt, 1985: 27-33). Fengler & Goodrich(1979)는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자를 숨은 환자(hidden patient)라 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도움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현재 치매환자와 돌보는 가족이 마음 편히 이용할 전문병원과 시설은 부족하다. 또한 함께 지역에서 거주하는 치매환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케어 할 전문적인 지식과 시스템은 전혀 없는 상황

이며 이러한 부재가 치매환자 장기실종으로 이어지고 있다.

3. 실종 치매환자 추적기법 부족

1) 보호시설 무연고자 등 자료 미활용

신원불상 변사자에 대해 형사계에서 변사사건 접수 후 처리결과를 입력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료를 실종자 발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발견이 안 된 대부분 치매환자는 보호시설에서 발견되거나 신원불상자로 변사처리가 되고 있다.

‘15년도 일제수색은 3월 2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 간에 걸쳐 경찰 11,077명, 실종가족 148명, 사회단체 363명 등 총 12,255명이 참석하여 16,159개소를 점검하여 실종자 8,299명, 약자보호 39건, 수배자 17명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3년 이상 되는 실종자는 143명이 되었다. 향후 일제수색은 도서지역 염전과 양식장, 축산시설,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면밀한 수색진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치매환자의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할 의사표시를 할 수 없어서 스스로 가족을 찾을 수는 없다. 따라서 현장 경찰은 적극적으로 무연고자, 신원불상 변사자 등에 대해서는 발견당시 상황, 신체적 특징, DNA 등을 면밀하게 수사하여 가족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DNA검사란 개인을 식별하거나 특정한 질병 또는 상태의 원인이 되는 돌연변이 등을 비교, 조사 또는 확인할 목적으로 염색체, 유전자, 유전자산물 등 유전물질들을 분석하는 행위(생명과학보건의 전윤리법안 제2조 제8호)를 말한다.

2) 공간회귀분석 도입 등 추적기법 다양화 부족

치매환자는 길을 잃은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유용한 추적기법은 공간회귀분석기법 및 프로파일(profile) 기법이다. 지역 장소별, 시간대별 치매환자의 실종발생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여 예방 및 발견하고, 치매환자의 외모, 신체적 특징, 유류물 등을 세부적으로 입력하여 이 자료를 근거로 치매환자를 추적하는 수사

기법이다. Kim(2008)은 “치매노인의 정신행동장애 및 부양부담과 신경인지기능과의 관련성연구에서 치매노인의 행동 및 심리적 증상(BPSD)이 치매 노인들에게는 매우 흔한 현상이며,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증상의 빈도나 관련된 부양부담에 대한 연구가 드물다”(Kim, 2008)고 했다. 향후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증대하고 다양한 첨단수사기법의 개발과 수사 인력, 제도, 장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과 보강이 요구되고 있다”(Kwak, 2004: 59-83). 또한 실종현장에서 발견된 미세증거물을 확인하여 현미경과 고압멸균기 등 22가지 최첨단장비를 통해 수사하는 ‘다기능 현장증거분석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치매환자 발견에 힘써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러한 수사기법의 다양성 도입에 소극적이다.

IV. 실종 치매환자 수사의 대한 개선방안

1. 실종 치매환자 상태에 따른 수사역량 강화

2016년 10월 초에 치매를 앓던 75살의 남성이 집을 나간 뒤 실종되어 관할 경찰은 수색전까지 투입하여 야산에 쓰러져 있는 치매 남성을 발견했다. 치매가 심해지면 하루 30번 이상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족들은 24시간 돌보아야 한다. George & Gwyther(1986)는 “치매노인 보호부양에 관한 연구에서 이 노인들을 보호 부양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우울증,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George & Gwyther, 1986: 253-259).

전국치매역학조사를 보면 2016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환자 비중은 약 10%(약 7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015년도에는 치매환자 실종은 총 9,046건 발생했으며, 존엄성이 무너지고 생존을 위협받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경찰은 치매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알츠하이머형 치매환자 실종의 경우에는 기억력, 판단

력, 지남력으로 물건을 잊어버리거나 길을 잃고 헤매는 횟수가 점점 증가한다. 따라서 실종 현장에서 실종 치매환자의 평소 행동 등에 따라 수사방향을 결정해서 신속하게 수색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발견에 힘써야 한다. 둘째 혈관성 치매환자 실종자 정신상태는 환시·우울증·불안감이다. 실종당시 자살 또는 인격적 모독감을 통해 나간 것인지 또는 아들 또는 남편을 만나러 가겠다 등 평소 진술을 근거로 수색을 해야 한다. 자살이나 장거리 이동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신속한 초기 방향설정은 치매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2. 지역 및 기관 간 협업체계 활성화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 먼저 돌보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치매를 이해하고, 정신행동 증상관리와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는 다양한 경험을 서로 나누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 관할 기관에서는 치매환자에 대해 상태의 경중여부 파악, 보호자, 보호방법은 집안, 시설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치매환자 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 확대, 치매 관련 예산의 확충과 서비스 인프라 확충이다. 또한 지역별 종합지원체계 구축과 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이다. 치매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복지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경찰과 주민들의 협력 체제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관계 기관간의 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 보건소의 통합정보시스템자료, 장애인 정보자료, 보호시설 자료, 유치인, 수형자, 고용정보자료, 의료정보 자료 등 공유를 통해 실종 치매환자가 집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업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3. 다양한 추적기법 개발

1)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위성항법장치(GPS)와 지리정보시스템(GIS) 등을 활용한 실종자 수색시스템을 적극 보급해야 한다. 지리정보와 실종자의 위치정보를 지도상에 표출하여 실종자

를 수색위치와 진행된 수색범위를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치매환자 등 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한 현장수색의 경우 수색범위가 넓고 실종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 수색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기술이용은 치매환자 발견율을 높일 수 있다. 치매환자가 실종될 경우 대부분 야산과 들판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고 있는 점을 보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종자를 발견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적극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통해 치매환자 등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공간회귀분석 도입 및 추적기법 다양화

치매환자 등 실종자의 외모, 의상, 치아, 흉터, 발생 장소, 신체적인 특징, 실종 장소에서 발견된 유류물 등의 특징을 세부적으로 입력해 실종자를 추적하는 방법이다. 치매환자 등이 길을 잃어버렸을 경우 인상착의나 신체 특징을 시스템에 입력하면 전국의 실종아동 전문기관과 정신보건 시설 등의 컴퓨터자료 공유를 통해 비교 검색을 해서 가장 비슷한 사람을 찾아낼 수도 있다. 빅데이터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첨단수사 기법의 개발과 수사 인력, 제도, 장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과 보강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지리적 프로파일링시스템'(일명 GeoPross)을 활용해서 실종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 이동경로, 활동영역 등을 예측하여 실종자 발견에 활용한다. 이러한 공간회귀분석을 도입하고 활용한다면 사전에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실종 후 발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지능형 CCTV 활용

CCTV는 해상도가 높아지면서 더 선명한 영상을 촬영해 사람의 얼굴을 세밀하게 파악하기도 하고,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적용해 이상 행동이나 위협 상황을 자동으로 포착,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솔루션이 등장했다. 즉 단순히 촬영이나 감시 기능을 넘어 안전과 복지로 용도가 확장된 것이다. 이러한 지능을 실종 치매환자의 얼굴, 신체적인 특징, 쓰러지는 모습, 특이한

행동 등을 세부적으로 입력해 실종자를 추적하는 방법을 통해 실종 치매환자를 발견하는 것이다. 최근 KT텔레캅은 KT의 LTE(롱텀에볼루션) 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을 돕는 ‘씨 블랙박스’를 내놨다. 집안에서 어민들이 포구의 기상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고, 360도 카메라에 적용한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치매환자 실종예방 및 찾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VI.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실종 치매환자의 수사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최근 들어 치매환자 실종이 심각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이 커지고 붕괴되면서 우리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치매환자 실종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루어진 경찰의 실종수사에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경찰은 치매환자의 상태별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알츠하이머형 치매환자 실종의 경우에는 실종 현장에서 실종 치매환자의 평소 행동 등에 따라 수사방향을 결정해서 신속하게 수색을 실시해야 하는 점에 집중해야 하며, 혈관성 치매환자 실종자 경우는 실종당시 자살 또는 인격적 모독감을 통해 나간 것인지 또는 아들 또는 남편을 만나러 가겠다 등 평소 진술을 근거로 신속한 초기 방향설정을 통해 장거리 수색 및 추적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별 종합지원체계 구축과 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이다. 지역별 관할 기관에서는 치매환자에 대해 상태의 경중여부 파악, 보호자, 보호방법은 집안, 시설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치매환자 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 확대, 치매 관련 예산의 확충과 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과학수사를 생활화해야 한다. 치매환자 등 실

종자의 외모, 의상, 치아, 흉터, 발생장소, 신체적인 특징, 실종 장소에서 발견된 유류물 등 증거물을 세부적으로 과학수사 및 분석하고 입력해 실종자를 추적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전국의 보호시설자료와 비교 분석하고 추적해야 한다.

넷째, 위성항법장치(GPS)와 지리정보시스템(GIS) 등을 활용한 실종자 수색시스템을 적극 보급해야 한다. 지리정보와 실종자의 위치정보를 지도상에 표출하여 실종자를 수색위치와 진행된 수색범위를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게 함으로써 실종 치매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인공지능 CCTV를 도입해야 한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적용해 이상 행동이나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포착,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솔루션이다. 이러한 지능을 실종 치매환자의 얼굴, 신체적인 특징, 쓰러지는 모습, 특이한 행동 등을 세부적으로 입력해 실종자를 추적하는 방법을 통해 실종 치매환자를 발견하는 것이다.

실종 치매환자 수사에 대한 개선방안은 실종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현장 수색에 동원되어 발견할 때까지 인력이 총동원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찰의 효율적 수사와 함께 고통 받은 실종자 가족의 아픔을 신속하게 해결할 것으로 본다.

References

- Fengler, A. P. and N. Goodrich. 1979. Wives of Elderly Disabled Man: The Hidden Patients. *The Gerontologist*. 19(2): 175-183.
- FOX2 NOW紙. 2015.02.18. Police Embracing New Technology to Help Safeguard the Vulnerable 題下.
- George, L. K. and L. P. Gwyther. 1986. Caregiver Well-being: A Multidimensional Examination of Family Caregivers of Demented Adults. *The Gerontologist*. 26: 253-259.
- Hwang, Eui Wan. 1997. *Right Understanding of Dementia and Oriental Medicine Treatment*. Jeonmundang.
- Japanese Police. 2014.12.12. Police Measures Introduction.
- Kim, Jin Young.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al Behavior

Disorder and Caregiving Burden and Neurocognitive Function in Demented Elderly.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Kwak, Dae Kyung. 2004. A Study on Criminal Psychology and Its Application to Police Investigation. *Social Science Research*. 10(2): 59-83.

LA Consulate General. 2005.08.09. LA-567. Internal Reporting Materials.

Pratt, et. al. 1985. Burden and Coping Strategies of Caregivers to Alzheimer's Patients. *Family Relations*. 34: 27-33.

UK Resident. 2013.01.01. UK-80. Internal Reporting Data.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곽대경. 2004. 범죄심리에 대한 연구와 경찰수사 활용방안. *사회과학연구*. 10(2): 59-83.

김진영. 2008. 치매노인에서 정신행동장애 및 부양부담과 신경인지 기능과의 관련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황의완. 1997. 치매의 바른 이해와 한의학적 치료. 집문당.

Received: Aug. 11, 2017 / Revised: Sep. 13, 2017 / Accepted: Sep. 15, 2017

실종 치매환자 수사에 대한 개선방안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2015년 기준 13.1%에 이르고, 2040년에는 32.4%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가정의 결속력 약화, 부양능력 부족 등 원인으로 치매환자의 실종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환자 실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치매환자 인식표나 지문사전등록제도로 대응하기에는 한계점에 이르렀다. 치매환자 실종사건에 대해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고 수사를 해야 할지 기준이 불명확 상황이다. 치매환자 실종원인을 살펴보고, 원인별 대응방법, 경찰수사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통해 수사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 치매, 실종수사, 추적기법, 실종원인, 고령화사회

Profiles **Keon Su Lee** : He received his M.A. from Graduate School of Law, Korea University and Ph.D. degree from Dongguk University, Korea. He is a professor of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Baekseok University. He won the award of exemplary civil servant in 2003, 10 Blue Dragon Award for Service Award, KBS impressing grand prize in 2012, etc. He was selected as “true sharing practitioner” in 2013, visited Cheong Wa Dae (recommended by Ministry of Welfare) and “Police Officer of the Year” in 2014(keonsu@naver.com).